

집콕 스트레스 '푸시팝'으로 뽁뽁 터트려요



'뽁뽁이' 또는 '푸시팝'으로 불리는 이 장난감은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싸템'으로 통한다.

광주 10대 스마트기기 3.9시간 이용...2년 전보다 44% 증가 청소년 사이에 혼자 갖고 노는 슬라임·뽁뽁이 장난감 인기 에스프레소 머신·밀키트 제품·식기세척기 등 매출 증가 꾸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실내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색적인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14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올 들어 이들 매장에서는 필수가전이 아닌 전자제품 매출이 크게 올랐다.

올해 1-5월 LED 조명으로 피부를 가꾸는 피부 미용기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2.7% 증가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삼시세끼 해결하는 가정용 늘면서 식기세척기·음식물 처리기 매출은 54.3% 뛰었고, 의류관리기는 41.3% 증가했다.

집에서도 커피전문점 수준의 차 한 잔을 즐기자

는 '홈카페' 열풍이 일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제조기) 매출은 1년 전보다 30% 올랐다.

외식을 꺼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간편식(밀키트)이 인기다.

같은 기간 광주 이마트 밀키트 제품 매출은 전년보다 4배 수준(331.2% ↑)으로 급증했다. '집밥' '홈' 문화와 맞물려 집에서 아늑한 요리와 안주를 즐기려는 1인, 20-30대 가구가 소비를 주도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맞춰 가장 소비 경향 역시 변화 중"이라며 "가사노동 최소화를 위한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의류관리기 등의 제품들이 필수가전 대열에 오르며 이들



찾는 고객들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수업을 받은 청소년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흔히 '뽁뽁이'로 알려진 '푸시팝' 또는 '몰랑이', '꼭꼭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유행을 이끄는 '인싸템'으로 통한다.

푸시팝은 기존 포장용 에어캡과 달리 한정 없이 쓸 수 있다. 가격은 3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르다. 하트나 공룡, 오리,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따로 또는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가장 빨리 유행한 곳을 배우는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삼삼오오 시합을 즐기기도 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료한 시간을 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푸시팝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슬라임', '클레이'(점토)와 함께 동심을 찾는 대표적인 '키덜트'(어른+어린이) 장난감으로 꼽히기도 한다.

광주 롯데마트 관계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슬라임과 푸시팝 등 장난감은 복잡한 절차 없이 집에서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며 "푸시팝 상품은 전체 문구류 매출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사이에서 혼자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유행하는 것은 코로나19 탓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놀기 어려운 숫자 못할 현실이 반영됐다.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19세 하루 평균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은 3.9시간으로, 2년 전인 2018년(2.7시간)에 비해 44.4%나 늘었다. 20대 이용 시간은 3.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증가했고, 30대도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소폭 늘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유명 먹거리 한번에 만나요" 14일 (주)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본관 지하 1층 식품 행사장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유명 먹거리 기획전'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행사에서는 곡성 특산물 멜론(1개·6900원), 사과(5개·9800원), 경북 영덕 컵물회(1만원), 제주 전복 볶음밥(1만1900원) 등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전KDN, 상반기 72명 채용 외부 채용감사인 첫 도입

블록체인 적용...채용 공정성 강화

한전KDN은 올해 상반기 공채에 외부 채용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72명의 인재를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DN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면접 심사 때 학연·지연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하고 외부 면접관을 초빙해왔다.

올해는 한국바른채용인증원(주)과 협업해 외부 채용감사인 2명이 채용제도와 면접 절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외부 채용감사인은 ▲지원자 및 면접위원 사전 소집 안내 ▲면접장소 별 면접위원의 면접진행 ▲진행위원의 면접 준비실 운영 ▲면접 후 평가자료 검증 ▲지원자 배려 조치 등 면접 전반 등을 들여다봤다.

한전KDN은 지난 4월28일 1차 실무면접과 5월 13일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외부 감사인은 이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의 적절성, 면접위원의 태도 및 면접질문의 적절성, 면접도구, 면접시간, 평가자료 보안 등을 살펴보고 감사 의견을 냈다. /백희준 기자 bhj@

호남통계청, 42만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다음달 30일까지 진행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업체 42만여 개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체는 광주 9만2794개, 전남 14만4207개, 전북 13만8453개, 제주 4만8382개 등 총 42만3836개이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처음 실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 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

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전국의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 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내년 6월에 공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기술 융복합 멘토링 세미나' 참여 기업 모집

광주상의 24~25일 진행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4~25일 서울 코엑스와 남서울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될 '2021 신기술 융복합 멘토링 세미나'에 참여할 지역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유망기업이 주력산업 제품·기술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해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1년 광주 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전

액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전시회 투어 및 남서울대 4차 산업혁명 추진단센터 견학이 있다. 또 신사업아이템개발 디자인 씹킹(Design Thinking), 4차 산업기반 IR 성공사례 세미나, 6대 분야(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등) 신사업 도입 전문가 멘토링 등 78이다.

참가대상은 광주 소재 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 명으로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 안내문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52.13 (+2.81)
↑ 코스닥	997.41 (+6.28)
↑ 금리 (국고채 3년)	1.287 (+0.011)
↑ 환율 (USD)	1116.70 (+5.90)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지난 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진흥원은 2020년 가상현실(VR·AR) 융합 콘텐츠 실증사업을 벌여 광주 기업 ㈜스튜디오코인의 디지털치료제 '운전 중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완화 VR 기반 ICT 심리케어 콘텐츠'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 정보통신(IT)기술과 의료 영역이 융합된 차세대 치료제를 말한다.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디지털 치료제 국내 도입 촉진과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임상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디지털 치료제 실증사업 과제 수행 ▲개발 및 실증 결과물 활용 등이다.

탁용석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진흥원이 기획 중인 디지털 치료제 실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디지털 치료제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 경기/수도권 지역
-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 투자금 - 3억 이상
-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